

技術開發이

生存·繁榮의 길



李 正 五

〈科學技術處長官〉

존경하는 閔寬植회장님 !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 제 17 회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定期總會에서 본인이 激勵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求心的 位置에 서서 科學技術人의 地位向上과 科學技術發展에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신 韓國科學技術團體 任職員 여러분과 이에 積極 協助하여 주신 科學技術團體會員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80 年代 제 2 의 跳躍을 이룩하려는 轉換點에서 우리 科學技術人들은 앞으로 科學技術發展에 더욱 힘을 기울여 先進福祉國家建設에 앞장설 決意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科學技術開發의 成敗가 곧 나라 興亡에 직결된다고 하여도 결코 過言이 아니며 大統領閣下께서도 누차 強調하신 바와같이 冷嚴한 國際社會에서 우리가 存在하고 繁榮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科學技術發展을 통해서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우리의 科學技術開發을 阻害하는 國內外的 모든 요인들을 果敢히 除去하고 國家技術開發能力을 國家發展 目標에 副應하여 結集·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技術드라이브策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 월 29 일 大統領閣下의 主帝로 科學技術界·產業界·學界 代表들이 모두 참여하여 개최된 第 1 회技術振興擴大會議도 바로 이러한 政府의 政策意志를 가장 端的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앞으로 우리 科學技術人들이 遂行하여야 할 役割과 使命은 그 어느 때보다도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今年에도 이와 같은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科學技術振興事業을 보다 組織的으로 展開함으로써 科學技術의 不斷한 開發은 물론 은 國民이 科學技術을 더 잘 理解하고 生活化하도록 先導해 주실것을 懇曲히 付託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會員團體 여러분들의 無窮한 發展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